

초·중학생들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에 대해 갖는 교우기대감 비교 분석*

신 현 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이 연구는 초, 중학교 일반학생들이 일반학생과 의 교우기대감과 그들이 학교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세 유형(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의 장애학생에 대해 갖는 교우기대감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 차이는 학년군과 성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의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 953명이었다. 사용한 도구는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은 세 유형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세 장애유형 간의 교우기대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일반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은 저학년 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정하였고, 장애아동 대상 교우기대감에서는 고학년 학생들이 높게 평정하였다. 셋째, 일반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하위영역 중 친밀감과 도덕성 영역은 저학년 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정한 반면 능력/유사성 영역은 가장 고학년이 가장 높게 평정하였다. 넷째,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평정 시에는 친밀감 영역을 그리고 세 유형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평정 시에는 도덕성 영역을 가장 높게 평정하였다. 다섯째, 학년과 성에 따른 교우기대감의 차이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세 유형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모두에서 학년차가 나타났고, 성차는 하위영역인 친밀감 영역에서만 여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일반학생들이 갖는 교우기대감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국가수준에서의 연구 필요성,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간 교우관계 지원 시 전략적인 고려사항의 채검도, 교우관계에서의 성차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분석 연구의 필요성, 교우관계 연구와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는 경우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교우기대감, 친구관계, 통합환경, 지적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shinkiha@dankook.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 대부분은 교과학습 수행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활동이 또래들과의 대인관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Buysee 등(2002)은 서로 다른 연구와 이론적 전통들을 통하여 입증하여 왔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또래관계에 대한 개념화에서 아동의 사회적 수용(예, 인기아동, 무시아동, 거부아동, 평균아동, 논란아동), 다양한 형태의 친구관계와 사회적 관계(예, 지인관계, 일방적 관계, 보통 친구, 친한 친구, 절친), 사회적 구조의 수준(예,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 간 친구관계, 또래망, 또는 도당), 그리고 친구관계가 주는 기능(예, 동반자 정신, 친밀성과 애정, 정서적 지지, 사회적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의 틀을 구축해 왔다는 것이다(Hartup, 1996; Newcomb & Bukowski, 1983; Coie, Dodge, & Coppotelli, 1982).

그 중에서도 매우 다면적이고 정의적 속성들을 반영하는 친구관계는 아동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친구관계는 아동의 인지와 언어의 발달을 향상시키고(Gresham & Reschly, 1987),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Costin & Jones, 1992), 감정통제와 개인의 안녕(Bukowski & Sandberg, 1999)을 향상시키며, 학습을 촉진하고(Del Favero, Boscolo, Vidotto, & Vicentini, 2007), 또래들에 의해 희생당할 가능성을 줄여주며, 행동문제들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Laursen, Bukowski, Aunola, & Nurmi, 2007; Fox & Boulton, 2006; Hodges, Boivin, Vitaro, & Bukowski, 1999). 반대로 친구관계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 높은 수준의 정서적 괴로움과 함께 낮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 및 성취를 보인다고 한다(Wentzel, Barry, & Caldwell, 2004).

아동의 친구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온 주제들 중에는 아동이 품고 있는 친구에 대한 개념 즉, 교우기대감의 발달 과정에서 성별의 영향, 교우기대감 구성 하위영역의 발달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아동의 성과 관련해서, Parker와 Asher(1993)는 여아가 남아보다 상호 간에 더 친밀하고 갈등해결을 잘 하고 도움과 인내를 더 제공한다고 보고했으며, Claes(1992)와 Sharabany 등(1981)은 여아가 남아보다 친밀과 애착의 수준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밀감을 더 중요시했다는 보고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김나미, 2005; 김정윤, 2000; 오현미, 2000; 이은혜, 고윤주, 1999; 신주혜, 1999; 장

정원, 1996),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 수가 더 많다는 결과(신재은, 2000, 도현심, 2000), 여아가 남아보다 동성친구와 상호작용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내용에서도 자기노출과 정서적 지원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김미란, 2002) 등이 있다.

아동의 발달시기별로 살펴보면, 유아기에는 놀이친구인 또래를 다른 아이들보다 선호하는 것이 이 시기 친구관계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아동기에는 놀이친구와의 활동과 집단 수용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나 충실성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한다(김미란, 2002; 장정원, 1996; Fehr, 1996; Buhrmester, 1990;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 E., 1981). 그러나 아동이 친밀성이나 도덕성과 같은 친구관계의 속성들에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다는 국내연구의 결과들 또한 함께 보고되고 있다(남경옥, 신현기, 2012a; 신주혜, 1999; 김수정, 1990).

그런데 이러한 친구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서 사회적 참여라는 관점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교육환경 대부분이 통합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간 친구관계와 관련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수행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간 친구관계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공적 통합의 단서로서 친구관계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오선영, 2000, 권원영, 1998, Guralnick, Conner, & Hammond, 1995), 통합상황에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간 친구관계에 대한 지각 혹은 선호요인을 조사한 연구들(문선영, 한경근, 2008; 전준, 신현기, 2007; 김완희, 2001), 그리고 중재 적용 후 양자 간의 친구관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연구들(허희선, 박승희, 2011; 장혜성, 장혜원, 2009; 최원아, 이소현, 2009)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은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통합교육이 일반화되기 이전부터 통합교육을 수행해 왔었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또한 제기된 바 있는 감각장애아동들의 친구관계에서의 문제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합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아동들의 친구관계 관련 특성의 발달수준이나 성의 영향 여부와 같은 전략적 접근 역시 다소 미흡한 감이 있었다.

이에 남경옥과 신현기(2012a; 2012b)는 국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교우관계를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우기대감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우리나라 초, 중학생들이 지적장애학생을 사귀다고 가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적 속성들의 수준과 하위영역의 양상이 일반학생을 사귀다고 가정할 때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남경옥과 신현기(2012a)의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성들을 살펴보면, 주요 선행연구들과는 반대로 일반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아니

지만 친밀감과 도덕성 영역과 같은 내적 성향에 대한 점수는 낮아지고 능력/유사성과 같은 외적 성향에 대한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위의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 성격과 새로운 연구 성격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후속연구의 성격으로는 위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보다 큰 사례수를 적용하였다는 점이 그것이고, 새로운 연구성격으로는 위 연구 결과에 비추어 장애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교우기대감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지적장애 이 외에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영역을 포함시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효과들을 기대하였다.

첫째, 국내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를 통해 남경옥과 신현기(2012a)에서 나타난 일반아동들의 교우기대감 특성들에 대한 정보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 시점 우리나라 일반아동의 교우기대감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해주며, 장애아동 대상 교우기대감 조사에서 보다 견실한 준거역할을 해주므로 중요성이 큰 정보라 할 수 있다.

둘째, Wright(1988)이 비판했듯이, 장애라는 인간의 한 가지 속성만을 연구설계에 담아 인간에 대해 어떤 평정을 시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거나 실제 개개인의 대인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교우기대감이 아동의 교우선택과정을 안내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일반아동이 가지고 있는 대상별 교우기대감 수준과 교우기대감의 하위 속성별 양상에 대한 정보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교우관계, 특히 통합학급에서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동들과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일반아동 및 장애아동 대상 교우기대감의 성과 학년군별 패턴은 어떠한지, 그러한 패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등 일반학생들의 성과 발달수준에 따른 교우기대감 관련 정보는 대상에 특화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관계개선 중재 프로그램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위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들의 교우기대감과 장애학생들(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에 대한 교우기대감은 서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일반학생들의 교우기대감과 장애학생들(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에 대한 교우기대감은 학년군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에 협조적인 학교들을 편의 표집하였다. 그리하여 서울 및 수도권 2개 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세 곳(A, B, C)과 중학교 두 곳(D, E)의 40개 학급 약 1,300여명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 학교들은 모두 특수학급이 1~2개씩 설치되어 있었고, 장애학생이 3~10명씩 재학 중인 곳이었다.

대상 학년은 남경옥과 신현기(2012a)의 연구와 동일하게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선정하여 비교분석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들 학년은 Sullivan(1953)의 사회적 욕구 발달단계에서 아동기, 청년 이전기, 청년기 초기에 해당하며 발달단계에 따른 교우기대감의 차이를 보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이 소속된 학급 당 학생 수는 중학교 두 곳이 39명과 40.9명으로 전국평균 34.1명보다 높았고, 초등학교 3학년은 30~31.4명, 6학년은 27.5~29.2명으로 역시 전국평균 25.3명과 26명보다 높았다. 성비는 초등학교 세 곳의 남학생 비율이 51.6~53.9%로 전국 초등학교 평균 52.2%와 유사한 수준이며, 중학교 두 곳의 남학생 비율은 52.7%와 55.8%로 전국 중학교 평균 52.3%와 큰 차이가 없었다.

설문지가 수거된 후 신뢰성과 자료처리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953명의 응답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의 학년,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학생들의 학년 및 성별 분포

학년	초3			초6			중3		전체
	A	B	C	A	B	C	D	E	
남	57	57	34	68	49	10	71	111	457
여	61	42	22	71	60	17	90	133	496
전체	118	99	56	139	109	27	161	244	953

2. 연구 도구

설문지는 A4지 3쪽 분량이다. 1쪽은 안내문, 소속과 성별 기재란, 그리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교우기대감 척도 21문항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2~3쪽은 시각장

에, 청각장애,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교우기대감 척도 63문항(21문항 × 3세트)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영역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로 한정된 것은 설문을 요구받은 학생들이 다양한 장애영역에 대해 변별하는지 확인이 곤란하고, 모든 장애영역에 대한 평정을 요구할 때 너무 많은 문항 수로 인해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자 판단에 의한 것이다.

설문지에 사용된 척도는 남경옥과 신현기(2012b)가 제작한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이다. 이 척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친밀성, 능력/유사성, 도덕성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21문항이다. 5단계 Likert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중요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약간 중요함: 4점, 매우 중요함: 5점)로 평정되며 총점수의 범위는 21~105점이다.

이 척도 제작 시 산출한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 값은 .875(친밀성 영역: .844, 능력/유사성: .823, 도덕성: .745)이었다.

<표 2>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의 영역별 세부항목

영역	번호	문항
친밀성 (9문항)	1	내 친구는 항상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4	내 친구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7	내 친구는 나를 진정으로 좋아해야 한다.
	10	내 친구는 내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13	내 친구는 나와서 비밀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
	15	내 친구와 나는 서로 관심을 갖고 챙겨주어야 한다.
	17	내 친구는 나의 잘못된 점은 얘기해서 고쳐주려고 애써야 한다.
	19	내 친구는 내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싸주어야 한다.
	21	내 친구는 항상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어야 한다.
능력/ 유사성 (7문항)	2	내 친구와 나는 게임이나 공부 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 친구는 운동이나 싸움을 잘해야 한다.
	8	내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야 한다.
	11	내 친구는 음악이나 미술 등에 재주가 있어야 한다.
	14	내 친구와 나는 키나 잘생긴 정도가 서로 비슷해야 한다.
	18	내 친구와 나는 좋아하는 게임이나 운동, 취미가 같아야 한다.
20	내 친구와 나는 가정환경이나 공부를 잘하는 정도가 비슷해야 한다.	
도덕성 (5문항)	3	내 친구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내 친구는 마음씨가 착해야 한다.
	9	내 친구는 항상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12	내 친구는 항상 성실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16	내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고운 말을 해야 한다.

3. 연구 절차

먼저,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교사 2인의 추천을 받아 설문을 실시할 학교 5곳을 추천받았다. 이 후 각 학교에 조사를 주관할 교사를 한 명씩 선정하여 조사 진행과 설문지 회수를 담당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지와 설문 진행방법과 주의사항 등이 담긴 안내지를 인편으로 각 학교에 전달하였다.

설문지는 자료처리의 편의를 위해 인쇄소에서 B4지를 중철 제본하였다. 문항구성 시 특별히 고려한 점은 2~3쪽의 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우기대감 측정 시 최초에는 대상을 달리하여 동일척도를 세 번 반복해 평정하도록 구성했는데 응답의 편리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적도 한 문항 당 세 장애 영역 학생들에 대해 한꺼번에 평정하도록 수정한 점을 들 수 있다.

설문 진행은 해당학급 담임교사 혹은 각 학교의 특수교사에 의해 진행되었고, 완성된 설문지는 다시 인편으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219부였으며, 이 중 무성의한 응답, 미완성 응답, 중복응답 등이 있는 26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53부(회수된 설문지의 78.2%)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IBM SPSS ver. 19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를 위해서는 F 검정을 실시했으며, 두 번째 연구 문제를 위해서는 기술통계값(평균, 표준편차)의 검토와 함께 2-way ANOVA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일반학생 및 세 장애유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학생 953명의 교우기대감 평정자료를 연구 문제 순서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및 장애유형에 따른 교우기대감의 차이

일반학생 및 세 장애유형의 학생들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교우기대감 평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과 같이 교우기대감 전체점수 수준은 일반학생(3.33점)이 가장 높고, 시각(2.87점) 및 청각장애(2.87점)가 동일 수준, 그리고 지적장애학생(2.72)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척도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 일반 및 장애학생 대상 기술통계량 및 교우기대감의 차이

영역	평정대상	평균	표준편차	F	동일 집단군
친밀성	일반(a)	3.86	.58	229.49**	d < b, c < a
	시각장애(b)	3.28	.70		
	청각장애(c)	3.24	.70		
	지적장애(d)	3.08	.76		
능력/ 유사성	일반	2.47	.67	134.65**	b, c, d < a
	시각장애	1.95	.71		
	청각장애	1.99	.70		
	지적장애	1.91	.72		
도덕성	일반	3.59	.75	33.52**	d < b, c < a
	시각장애	3.42	.80		
	청각장애	3.42	.80		
	지적장애	3.22	.87		
교우기대감 전체	일반	3.33	.50	211.77**	d < b, c < a
	시각장애	2.87	.56		
	청각장애	2.87	.56		
	지적장애	2.72	.62		

* $p < .05$, ** $p < .01$, $N = 953$

대상별 평정점수에 대한 F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교우기대감 전체와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cheffé에 의한 사후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교우기대감 전체와 친밀성 및 도덕성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일반학생에 대한 점수가 세 장애 유형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동시에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점수는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유사성 영역에서는 세 장애유형의 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교우기대감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

일반학생 대상 교우기대감 점수를 학년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전체점수는 초3(3.39점), 중3(3.34점), 초6(3.26점)의 순이었다. 하위영역들 중 친밀성 영역과 도덕성 영역은 전체점수와 학년별 점수 순위가 동일하였으며, 능력/유사성 영역에서만 중3(2.56점), 초6(2.51점), 초3(2.31점)의 순이었다.

<표 4> 일반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학년별, 성별 기술통계량

영역	학년	성 별						소 계		
		남			여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친밀성	초3	148	3.91	.62	125	3.89	.68	273	3.90	.65
	초6	127	3.65	.61	148	3.89	.56	275	3.78	.60
	중3	182	3.71	.55	223	4.02	.46	405	3.88	.52
소 계		457	3.76	.60	496	3.95	.56	953	3.86	.58
능력/ 유사성	초3	148	2.34	.75	125	2.26	.71	273	2.31	.73
	초6	127	2.49	.65	148	2.53	.65	275	2.51	.65
	중3	182	2.67	.65	223	2.46	.58	405	2.56	.62
소 계		457	2.51	.70	496	2.43	.64	953	2.47	.67
도덕성	초3	148	4.04	.67	125	3.93	.79	273	3.99	.73
	초6	127	3.38	.72	148	3.38	.76	275	3.38	.74
	중3	182	3.40	.72	223	3.52	.62	405	3.46	.67
소 계		457	3.60	.77	496	3.58	.74	953	3.59	.75
전 체	초3	148	3.42	.51	125	3.36	.62	273	3.39	.56
	초6	127	3.20	.50	148	3.31	.50	275	3.26	.50
	중3	182	3.29	.50	223	3.38	.40	405	3.34	.45
소계/평균		457	3.31	.51	496	3.35	.49	953	3.33	.50

점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점수는 여학생(3.35점)이 남학생(3.31점)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하위영역에서는 친밀성 영역은 여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도덕성 영역과 능력/유사성 영역은 남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5> 일반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

영역	분산원	자유도	평균제곱	F	동일 집단군
친밀성	학년	2	1.21	3.70*	초6 < 초3
	성	1	7.23	22.20**	
	학년*성	2	2.31	7.08**	
능력/유사성	학년	2	5.90	13.53**	초3 < 초6, 중3
	성	1	1.60	3.66	
	학년*성	2	1.20	2.75	
도덕성	학년	2	30.56	61.02**	초6, 중3 < 초3
	성	1	0.00	.01	
	학년*성	2	1.03	2.05	
교우기대감 전체	학년	2	1.15	4.65*	초6 < 초3
	성	1	0.55	2.23	
	학년*성	2	0.64	2.56	

* $p < .05$, ** $p < .01$

일반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는 <표 5>와 같다. 전체점수의 경우 학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4.65, p=.01$), 사후검정에서 초3(3.39점)이 초6(3.26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른 차이 ($F=2.23, p=.14$) 그리고 성과 학년 간 상호작용 ($F=2.56, p=.08$)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들을 살펴보면, 친밀성 영역은 학년 ($F=3.70, p=.03$)과 성 ($22.20, p=.00$)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초3(3.90점)이 초6(3.78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F=7.08, p=.00$) 또한 나타났다. 능력/유사성 영역은 학년 ($F=13.53, p=.00$)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초3(2.31점)이 초6(2.51점)과 중3(2.56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영역 역시 학년 ($F=61.02, p=.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초3(3.99점)이 초6(3.38점)과 중3(3.46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어서 시각장애학생 대상 교우기대감 점수를 학년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전체점수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3(2.96점), 초6(2.85점), 초3(2.75점) 순이었다. 하위영역에서 친밀성과 능력/유사성 영역은 전체 점수와 마찬가지로 학년 순이며, 도덕성에서만 중3, 초3, 초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시각장애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학년별, 성별 기술통계량

영역	학년	성 별						소 계		
		남			여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친밀성	초3	148	3.08	.81	125	3.19	.86	273	3.13	.83
	초6	127	3.19	.68	148	3.33	.63	275	3.27	.66
	중3	182	3.23	.63	223	3.53	.56	405	3.39	.61
소 계		457	3.17	.71	496	3.38	.68	953	3.28	.70
능력/ 유사성	초3	148	1.78	.74	125	1.75	.71	273	1.77	.73
	초6	127	1.94	.71	148	1.98	.72	275	1.96	.72
	중3	182	2.13	.70	223	2.00	.63	405	2.06	.66
소 계		457	1.96	.73	496	1.93	.68	953	1.95	.71
도덕성	초3	148	3.48	.92	125	3.38	.95	273	3.44	.94
	초6	127	3.36	.83	148	3.33	.71	275	3.34	.76
	중3	182	3.44	.74	223	3.49	.69	405	3.47	.71
소 계		457	3.43	.83	496	3.41	.77	953	3.42	.80
전 체	초3	148	2.74	.63	125	2.76	.70	273	2.75	.66
	초6	127	2.82	.57	148	2.88	.51	275	2.85	.53
	중3	182	2.91	.50	223	3.01	.44	405	2.96	.47
소계/평균		457	2.83	.57	496	2.91	.54	953	2.87	.56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점수는 여학생(2.91점)이 남학생(2.83점)보다 높았다. 하위영역에서 친밀성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았고, 능력/유사성과 도덕성 영역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시각장애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는 <표 7>과 같다. 전체점수의 경우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2.05, p=.00$), 사후검정에서 중3(2.97점)이 초3(2.75점)과 초6(2.85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에 따른 차이 그리고 학년과 성에 따른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시각장애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

영역	분산원	자유도	평균제곱	F	동일 집단군
친밀성	학년	2	4.75	10.06**	초3 < 초6, 중3
	성	1	7.56	16.02**	
	학년*성	2	0.94	2.00	
능력/유사성	학년	2	7.24	14.90**	초3 < 초6, 중3
	성	1	0.32	.66	
	학년*성	2	0.60	1.23	
도덕성	학년	2	1.15	1.80	
	성	1	0.18	.28	
	학년*성	2	0.46	.72	
교우기대감 전체	학년	2	3.64	12.05**	초3, 초6 < 중3
	성	1	0.79	2.62	
	학년*성	2	0.15	.51	

* $p < .05$, ** $p < .01$

하위영역들을 살펴보면, 친밀성 영역은 학년($F=10.06, p=.00$)과 성($F=16.02, p=.00$)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상호작용($F=7.08, p=.00$)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대한 사후검정에서는 초3(3.13점)이 초6(3.26점)과 중3(3.39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능력/유사성 영역은 학년($F=14.90, p=.00$)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초3(2.31점)이 초6(2.51점)과 중3(2.56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영역은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 그리고 상호작용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우기대감 평정점수를 학년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전체점수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3(2.97점), 초6(2.86점), 초3(2.71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들은 친밀성 영역과 능력/유사성 영역의 경우 전체 점수와 마찬가지로 학년 순이며, 도덕성에서만 중3, 초3, 초6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정점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점수는 여학생(2.90점)이 남학생(2.83점)보다 더 높게 평정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친밀성 영역에서 여학생이 더 높았고, 능력/유사성 영역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 도덕성 영역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8> 청각장애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학년별, 성별 기술통계량

영역	학년	성 별						소 계		
		남			여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친밀성	초3	148	2.94	.81	125	3.12	.88	273	3.02	.84
	초6	127	3.18	.67	148	3.28	.62	275	3.23	.64
	중3	182	3.21	.61	223	3.53	.55	405	3.39	.60
	소 계	457	3.12	.71	496	3.35	.69	953	3.24	.70
능력/ 유사성	초3	148	1.86	.67	125	1.77	.69	273	1.82	.68
	초6	127	2.02	.73	148	2.02	.71	275	2.02	.72
	중3	182	2.17	.71	223	2.03	.65	405	2.09	.68
	소 계	457	2.03	.72	496	1.96	.69	953	1.99	.70
도덕성	초3	148	3.39	.98	125	3.40	.94	273	3.39	.96
	초6	127	3.42	.82	148	3.32	.70	275	3.37	.76
	중3	182	3.45	.74	223	3.50	.68	405	3.47	.71
	소 계	457	3.42	.84	496	3.42	.76	953	3.42	.80
전 체	초3	148	2.69	.64	125	2.73	.70	273	2.71	.67
	초6	127	2.85	.56	148	2.87	.50	275	2.86	.53
	중3	182	2.92	.51	223	3.02	.44	405	2.97	.47
	소계/평균	457	2.83	.58	496	2.90	.54	953	2.87	.56

<표 9> 청각장애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

영역	분산원	자유도	평균제곱	F	동일 집단군
친밀성	학년	2	9.31	20.08**	초3 < 초6 < 중3
	성	1	8.75	18.87**	
	학년*성	2	.96	2.06	
능력/ 유사성	학년	2	6.62	13.82**	초3 < 초6, 중3
	성	1	1.42	2.97	
	학년*성	2	.41	.86	
도덕성	학년	2	.97	1.51	
	성	1	.07	.11	
	학년*성	2	.51	.80	
교우기대감 전 체	학년	2	5.42	17.97**	초3 < 초6 < 중3
	성	1	.65	2.17	
	학년*성	2	.14	.46	

* $p < .05$, ** $p < .01$

다음으로, 청각장애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는 <표 9>와 같다. 전체점수의 경우 학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7.97, p=.00$), 사후검정에서 중3(2.97점)이 초6(2.85점)보다 그리고 초6이 초3(2.75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른 차이 그리고 학년과 성에 따른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들 중 친밀성 영역은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20.08, p=.00$), 전체점수처럼 중3(2.38점)이 초6(3.23점)보다 그리고 초6이 초3(3.02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8.87, p=.00$). 능력/유사성 영역의 경우에는 학년 간 차이만 나타났으며($F=13.82, p=.00$), 초3(1.82점)이 초6(2.02점)과 중3(2.09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영역은 학년과 성, 상호작용 어느 것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우기대감 평정점수를 학년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전체점수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3(2.84점), 초6(2.69점), 초3(2.58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들은 친밀성 영역과 능력/유사성 영역의 경우 전체 점수와 마찬가지로 학년 순이었으며, 도덕성에서만 중3, 초3, 초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점수는 여학생(2.76점)이 남학생(2.69점)보다 더 높게 평정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친밀성과 도덕성 영역에서 여학생이 더 높았고, 능력/유사성 영역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

<표 10> 지적장애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학년별, 성별 기술통계량

영역	학년	성 별						소 계		
		남			여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친밀성	초3	148	2.90	.81	125	2.93	.89	273	2.91	.85
	초6	127	3.00	.77	148	3.10	.71	275	3.05	.74
	중3	182	3.04	.73	223	3.35	.61	405	3.21	.68
소 계		457	2.99	.77	496	3.17	.74	953	3.08	.76
능력/유사성	초3	148	1.79	.74	125	1.69	.71	273	1.74	.73
	초6	127	1.89	.73	148	1.95	.74	275	1.92	.73
	중3	182	2.07	.72	223	1.98	.63	405	2.02	.67
소 계		457	1.93	.74	496	1.89	.70	953	1.91	.72

영역	학년	성 별						소 계		
		남			여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인원	평균	표준편차
도덕성	초3	148	3.18	1.03	125	3.15	1.04	273	3.17	1.03
	초6	127	3.17	.86	148	3.09	.78	275	3.13	.82
	중3	182	3.27	.83	223	3.36	.73	405	3.32	.78
소 계		457	3.21	.91	496	3.23	.84	953	3.22	.87
전 체	초3	148	2.60	.67	125	2.57	.74	273	2.58	.70
	초6	127	2.67	.63	148	2.71	.58	275	2.69	.61
	중3	182	2.77	.59	223	2.90	.49	405	2.84	.54
소계/평균		457	2.69	.63	496	2.76	.60	953	2.72	.62

다음으로, 지적장애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는 <표 11>과 같다. 전체점수는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4.23, p=.00$), 사후검정에서 중3(2.84점)이 초6(2.69점)과 초3(2.58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른 차이와 학년과 성에 따른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지적장애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

영역	분산원	자유도	평균제곱	F	동일 집단군
친밀성	학년	2	6.55	11.83**	초3, 초6 < 중3
	성	1	4.76	8.61**	
	학년*성	2	1.94	3.51*	
능력/유사성	학년	2	6.52	13.02**	초3 < 초6, 중3
	성	1	.52	1.03	
	학년*성	2	.56	1.12	
도덕성	학년	2	3.38	4.47*	초6 < 중3
	성	1	.01	.01	
	학년*성	2	.65	.86	
교우기대감 전체	학년	2	5.28	14.23**	초3, 초6 < 중3
	성	1	.45	1.22	
	학년*성	2	.49	1.31	

* $p<.05$, ** $p<.01$

하위영역들을 살펴보면, 친밀성 영역은 학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1.83, p=.00$), 중3(3.21점)이 초6(3.05점)과 초3(2.91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8.61, p=.00$), 상호작용 또한 나타났다($F=3.51, p=.03$). 능력/유사성 영역의 경우에도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3.02, p=.00$), 초3(1.74점)이 초6(1.92점)과 중3(2.02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영역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47, p=.01$), 초6(3.12점)이 중3(3.32점)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를 통해 일반아동이 일반학생 그리고 세 유형의 장애학생들을 친구로 사귄다고 가정할 때 중요시하는 심리적 속성들의 수준과 속성별 차이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 및 장애유형에 따른 교우기대감의 차이

일반학생과 세 유형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우기대감 점수의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점수에서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정했을 때와 비교해 세 유형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정했을 때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일반학생들에 비해 세 장애유형의 학생에 대한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세 장애영역들 간의 점수를 비교하면 전체점수와 친밀감 영역, 도덕성 영역에서는 시각장애학생과 청각장애학생에 비해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교우기대감이 지적장애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한 남경옥과 신현기(2012a)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전체점수 및 친밀감과 도덕성 영역에서 시각장애학생과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점수가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온 것은 장애학생이라는 동일 명칭하에 있는 학생들일지라도 일반학생들은 장애영역에 따라 다른 수준의 교우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통합 환경 내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어 온 일반 학생들의 장애영역별 태도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형용사 척도를 사용해 시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홍승미(1998)는 일반학생들이 시각장애 및 지체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슬퍼보인다’, ‘외톨이다’, ‘솔직하다’와 같은 정서적이고 긍정적인 형용사를 선택한 반면 지적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느리다’, ‘공부를 못한다’, ‘바보같다’와 같은 덜 우호적인 형용사들을 채택했으며, 형용사 척도 점수에서도 다른 장애영역들에 비해 지적장애는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고, 수용성 척도에서도 지적장애 아동은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연희(2005)는 장애유형별 인식점수를 산출한 결과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서장애, 지체장애와 비교해 지적장애가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일반아동에게 장애아동 관련 시청각 자료와 설명을 제시한 후 장애아동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한 결과 청각장애아동이 가장 선호되었고 지적장애 아동이 가장 선호되지 않았다는 임승환(2004)의 연구, 그리고 통합교육 태도에 있어서 지적장애나 학습장애와의 통합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지체장애, 청각장애, 자폐증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 및 지적장애, 자폐증, 청각장애, 지체장애의 통합교육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태도비교에 있어서 지체장애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 태도를 가졌다고 제시한 오원석(2006, 2008)의 연구 등이 그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교우기대감 평정 시 실제 상황에서 실제아동을 대상으로 평정한 것이 아니기에 평상시 고정관념에 영향 받은 결과라 할 수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2. 교우기대감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

1) 기술통계분석

이 연구의 기술통계값들을 학년별, 성별, 척도영역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년별로 살펴보면, 일반학생 대상 교우기대감 전체와 친밀성 및 도덕성 영역은 초3년생들이 가장 높게 평정했고 능력/유사성 영역은 중3년생들이 가장 높게 평정했다. 세 장애영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전체점수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중3년생들이 가장 높게 평정하였다. 그리고 전체점수, 친밀성, 능력/유사성 영역에서는 초 3년생이 가장 낮게 평정하였고 도덕성 영역은 초6년생들이 가장 낮게 평정하였다.

교우관계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들과는 상반되게 고학년이 내적 속성들보다 외적 속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결과는 기존의 일부 국내 연구들(남경옥, 신현기, 2012a; 신주혜, 1999; 김수정, 1990)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연구에서도 저학년 학생들이 장애학생을 더 잘 수용한다는 연구 결과들(홍섭근, 2011; 윤양석, 2005; 이성애, 2004)이 있는데, 이에 대해 홍섭근(2011)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이 많아지고 생활이 복잡해짐으로 인해 학생들의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성별로 비교하면, 일반학생 대상 교우기대감 전체점수는 여학생들이 더 높게 평정하였다. 하위영역들에서도 친밀성 영역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학생들 점수가 더 높았으며 능력/유사성 영역은 남경옥과 신현기(2012a)의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남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덕성 영역은 남학생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남경옥과 신현기(2012a)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세 유형의 장애학생 대상 교우기대감 점수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처럼 전체 점수와 친밀성 영역에서는 여학생들이 더 높게 평정했고 능력/유사성과 도덕성 영역에서는 남학생들이 더 높거나 동일하게 평정했지만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능력/유사성 영역에서 여학생들이 더 높게 평정하였다. 남경옥과 신현기(2012a)의 연구에서는 일반학생과 지적장애학생 대상 모두 친밀성 영역과 도덕성 영역은 여학생들의 점수가 높았고 능력/유사성 영역은 남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학년별, 성별로 척도 하위영역들의 점수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 전체점수의 영역별 순위는 친밀성, 도덕성, 능력/유사성 영역의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전체점수의 순위와 동일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만 도덕성, 친밀성, 능력/유사성 영역의 순이었다. 그러나 세 장애유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모든 학년 학생들이 교우기대감 전체점수와 세 하위영역에서 도덕성, 친밀감, 능력/유사성 영역의 순으로 평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생들이 장애학생들에게 갖는 교우기대감은 일반학생에게 갖는 그것과는 다른 심리적 속성을 우선시 한다는 결과로서 남경옥과 신현기(2012a)의 결과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추리통계분석

이상의 자료들이 학년과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우기대감 전체 점수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3년생들이 초6년생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평정하였다. 세 장애유형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중3년생들이 다른 학년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평정하였다. 성별로는 일반학생과 세 장애영역 어디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만 일부 성과 학년수준에서 차이를 보고한 남경옥과 신현기(2012a)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친밀성 영역의 경우 일반학생과 세 유형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전체점수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학생과 세 장애유형 모두에서 여학생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남경옥과 신현기(2012a)의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능력/유사성 영역은 일반학생과 세 장애유형의 학생들 모두에서 초3년생들이 다른 두 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평정한 반면 성별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역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성차를 보고한 남경옥과 신현기(2012a)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도덕성 영역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초등학교 3학생들이 유의하게 높게 평정했으며, 이는 남경옥과 신현기(2012a)의 결과와 일치한다. 장애유형 중에서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만 중3년생들이 유의하게 높게 평정하였고,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우기대감 전체점수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학년별 차이는 나타났지만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학년별 차이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양상이 반대로 나타났다.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최저 학년과 최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세 유형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학년이 가장 높은 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정하였다. 즉 학년에 따라 중요시 여기는 속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과 장애학생에 대해 평정할 때에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와는 다르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세 유형의 장애영역들만 비교해보면, 공히 중3년생들이 저학년생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평정했는데,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초6년생들과 초3년생들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났지만 시각장애와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초3년생들과 초6년생들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우기대감의 하위영역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친밀성 영역의 경우 학년별,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 차이는 교우기대감 전체에 대한 학년별 차이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차이는 일반 및 세 장애학생 대상 모두에서 여학생들 점수가 남학생들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능력/유사성 영역의 경우에는 학년별 차이만 나타났다. 일반학생과 세 유형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초3년생들이 다른 두 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평정하였다. 도덕성 영역의 경우 일반학생과 지적장애학생 대상에서만 학년별 차이

가 나타났고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학생 대상의 경우 초3년생들이 고학년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평정했지만 지적장애의 경우 중3년생들이 초6년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다음의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외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일반학생 대상 교우기대감의 하위 영역들에서의 발달적 특성은 중, 고등학교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사회적 통합은 물론 우리나라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바람직한 발달을 한다고 보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수준의 체계적 자료수집과 진단 및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둘째, 통합 환경에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친구관계를 지원하려는 관점에서 볼 때, 장애아동에게는 교우관계를 상정함에 있어서 친밀성이 아닌 도덕성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은 전략적 지원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교우관계 연구에 있어서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는 상반되는 결과가 많으므로 보다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우관계의 관련변인들과 개념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Bagwell과 Schmidt(2011)가 지적했듯이 이 연구와 같은 법칙정립적(nomothetic) 연구만으로는 교우관계와 같이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개별사례들에 대한 개성기술적(idiographic) 연구들과 함께 교우관계에 대한 탐색을 축적시켜 나아간다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교우기대감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입장에서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현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때, 이에 대한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육적 방안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권원영 (1998). 특별한 친구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변화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나미 (2005). 아동의 정서능력과 친구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미란 (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수정 (1990). 청년기에 있어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에 대한 우정의 발달적 변화.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완희 (2001). 초등학교 통합 교실에서의 장애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의 사회적 태도와 친구 관계 분석.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김정윤 (2000).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학교에 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경옥, 신현기 (2012a). 통합학급 내 일반학생들의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교우기대감(Friendship Expectation) 연구. **지적장애연구**, 14(2), 47-74.
- 남경옥, 신현기 (2012b). 한국형 교우기대감 척도 개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1), 41-69.
- 도현심 (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 거부 및 우정 관계와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1(1), 307-322.
- 문선영, 한경근 (2008).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교우 선호 경향에 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0(4), 63-87.
- 신재은 (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54-165.
- 신주혜 (1999). 단짝친구관계와 학교생활적응: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오선영 (2000). 또래지원망 프로그램이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원석 (2006). 통합학급 구성원 관련 변인에 따른 비장애 학생의 통합 태도 분석. **특수교육연구**, 13(2), 297-318.
- 오원석 (2008).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와 비장애아동의 태도 변인 간 관계분석.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오현미 (2000). 아동의 외로움과 형제 및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윤양석 (2005). 초등학교 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조사. 석사학위 논문,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애 (2004). 초등학교 통합교육에 따른 일반학생의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분석.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연희 (2005). 장애유형별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학급 일반아동의 태도 분석.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혜, 고윤주 (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0(3), 225-249.
- 임승환 (2004). 초등학교의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아동의 장애유형별 선호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장정원 (1996).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자기능력 지각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혜성, 장혜원 (2009). 방과 후 음악활동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2(1), 27-48.
- 진준, 신현기 (2007). 통합 상황의 장애 초등학교생 친구관계의 질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403-418.
- 최원아, 이소현 (2009). 학급공동체 의식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일반학생이 지각하는 장애 학생과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8(1), 111-136.
- 허희선, 박승희 (2011). 학급차원의 또래도우미 활동 프로그램이 일반학생의 장애학생과의 친구관계화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10(1), 155-186.
- 홍섭근 (2011).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변인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승미 (1999). 초등학교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장애유형별 조사(시각, 지체, 정신지체).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Bagwell, C. L., & Schmidt, M. E. (2011). *Friendships in Childhood & Adolescence*. The Guilford Press.
-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101-1111.
- Bukowski, W. M., & Sandberg, D. (1999). Peer relationships and quality of life. *Acta Paediatrica Supplements*, 428, 108-109.
- Buysee, V., Goldman, B. D., & Skinner, M. (2002). Setting Effects on Friendship Formation Among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68(4), 503-517.
- Claes, M. E. (1992). Friendship and Person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5, 39-55.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Costin, S. E., & Jones, D. C. (1992). Friendship as a facilitator of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prosocial interventions among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41-947.
- Del Favero, L., Boscolo, P., Vidotto, G., & Vicentini, M. (2007). Classroom discussion and individual problem-solving in the teaching of history: Do different instructional approaches affect interest in different ways? *Learning and Instruction*, 17,

635-657.

- Fehr, B. (1996). *Friendship process*. Thousand Oaks: Sage.
- Fox, C. L., & Boulton, M. J. (2006).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social skills problems and different types of peer victimisation. *Violence and Victims, 10*, 23-40.
- Gresham, F. M., & Reschly, D. J. (1987). Dimensions of social competence: Method factors in the assessment of adaptive behavior, social skills, and peer accepta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5*, 367-381.
- Guralnick, M. J., Conner, R. T., & Hammond, M. (1995). Parent perspectives of peer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in integrated and specialized setting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9*, 457-476
- Hartup,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 Hodges, E. V., Boivin, M., Vita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94-101.
- Laursen, B., Bukowski, W. M., Aunola, K., & Nurmi, J-E. (2007). Friendship moderates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adjustment problem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78*, 1395-1404.
- Newcomb, A. F., & Bukowski, W. M. (1983). Social impact and social preference as determinants of children's peer group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56-867.
- Pa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 E. (1981). Girl friend, boy friend: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00-808.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Wentzel, K. R., Barry, C. M., & Caldwell, K. A. (2004). Friendships in middle school: Influences on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 195-203.
- Wright, B. A. (1988). Attitudes and the fundamental negative bias: Conditions and corrections. In H. E. Yuker (Eds.),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pp. 3-21). New York: Springer.

Comparative Analysis on Friendship Expectation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oward Peer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hin, Hyun Ki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udents' friendship expectations(FE) toward peers without disability and those with disabilities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o explore the grade and gender influence.

For this purpose, the author collected data from 956 students across 5 schools.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Korean Friendship Expectation Scale.

The results were the followings. First, the level of FE of the students toward peers without disabil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toward peers with disabilities.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FE scores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bility. Secondly, the lowest grade students rated the highest score toward peers without disability and the highest grade students rated the highest score toward peers with disabilities. Thirdly, the lowest grade students rated higher scores on Intimacy and Morality area but the highest grade students rated higher scores on Ability/Similarity area. Fourthly, Intimacy area score was the highest when rating toward peers without disability, but Morality area score was the highest when rating toward peers with disabilities. Fifthly, there was grade influence on the total scores of FE toward peer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gender influence on Intimacy area.

Finally, the author provided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friendship expectation, Inclusive setting, intellectual disability, hearing impairment, visual impairment

논문 접수: 2012. 08. 03 심사 시작: 2012. 08. 10 게재 확정: 2012. 09. 06